다산포럼

영호남 학술 교류의 자취를 찾아서

곽 진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전통 시대의 빼어난 말솜씨와 문장은 세상에 나아가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말솜씨이며 문장인가가 핵심이다. 올바른 문장과 말솜씨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유무가 가른다. 유학의 학문관은 인간다움의 길을 가려는 학술과 문장이다. 공자께서 사람이 길(道)을 넓히지 길이 사람을 넓히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이 그 세상의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인간의 길이 도(道)의 본질이란 것이다. 참다운 인간의 길이란 상식의 현재적 구현이다.

16세기 조선 유학은 인간다움의 원리 탐구와 그 회복에 천착했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자 했다. 사회적 장유(長幼)의 담을 넘어 도(道)의 본질에 대하여 매섭게 다투고 거침없이 토론하였다. 안동의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광주의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이 벌인 치열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이 그것이다. 이 토론은 조선조 학술사 발전에서 서찰 토론의 보편화라는 방식으로 기여한 공로가 크다. 스승인 퇴계는 고봉의 비판에, '어린 녀석이 감히 스승에게 맞서려는 것인가!'라고 고깝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7~8년 동안 편지 논쟁이 이어졌다.

스승과 제자라는 자리에 구애되지 않고 진지하게 벌인 논쟁은 흔치 않았다. 두 분이 벌인 서한(書翰) 논쟁은 당시 지식인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학술 토론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퇴계 시대만 하더라도 학문과 관련된 어떤 주제든 그 시대 문화 권력자의 주장이 정설(定說)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판과 반비판의 과정을 거쳐 인정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이다. 조선 유학의 빛나는 성과는 이 때문이다.

두 분이 벌인 토론의 여운은 수백 년을 넘긴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두 가문의 자손들이 학문적 유산을 계승했다. 1910년 나라가 일제에 병합되자 그해 9월 6일, 퇴계 후손 향산(嚮山) 이만도(李晩燾)가 순국(殉國)했다. 그가 순국하자 맏아들 이중업(李中業)과 안동 유림들이 향산묘문을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에게 위촉했다.

그는 기대승(奇大升)의 방손(傍孫)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손자였다. 호남 의병장이자 학문과 절의를 갖춘 시대의 거목이었다. 천 리 먼 길을 돌아 자신을 찾는 퇴계가(家) 후손들의 속내를 읽은 그는, '퇴계 선생의 도학과 향산의 절의가 이름은 다르지만 그 공로는 같다'고 평가한 다음 장편의 추모문을 지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다시 영호남 학문적 교류의 문이 활짝 열렸다. 전남 곡성 완계정사(浣溪精舍)가 그 중심이다. 정사의 주인인 분암(憤庵) 안훈(安壎)은 당시 거창 다전(茶田)에서 강학하던 곽종석(郭鍾錫) 문하에서 어두운 시대를 밝힐 불씨를 찾고 있었다. 앞서 그는 고향 선배인 송사(松沙)의 각별한 아낌을 받아 왔고, 그가 타계하자 가슴을 울린 만시(挽詩)를 지어 바친다. 완계(浣溪)에서 맺어진 영호남 학인들의 학술 교류, 이를테면 곽종석, 기우만(奇宇萬), 안훈(安壎), 이중업(李中業), 하겸진(河謙鎭), 곽윤(郭崙), 김황(金榥), 최익한(崔益翰) 그리고 분암의 문도들이 펼친 구국 활동은 1919년 한국유림독립운동과 이후의 독립운동의 에너지가 되었다.

조선 500년. 유교가 지배해 온 나라인데도 1919년의 3·1독립운동 민족 대표에 유림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림들에게 가해진 그 모멸감이 당파의 벽을 넘어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유림의 총의로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서는 한국 유림들이 학맥의 높은 벽을 허물고 세계 인류의 보편적 양심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이(理)의 논리로 세계인들을 설득하려는 운동이었다. '이'(理)의 활용을 주자학이나 퇴계학의 범위 안에 한정하지 않고 칠흑 같은 시대적 상황을 헤쳐 나가려는 이념적 근거로 삼았다. 세계를 상대로 독립을 호소한 장서운동은 이(理)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었다.

곡성 완계정사는 단순한 강학당이 아니었다. 시대의 민감한 정보들이 모이고 학맥이 교차하는 전선이었다. 영호남 학인들이 구국의 지혜를 찾고 학문적 편당(偏黨)을 넘어서려 했던 학술 교류처였다. 요즘 정치적 이해로 선현들이 남겨 주신 영호남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오염되고 있다. 각성을 촉구한다.

NGO 칼럼

녹색교통 활성화와 우선순위

백 기 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

녹색교통이란 교통체계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저탄소 교통을 말하며 보행, 자전거, 철도, 친환경차, 공유교통, 대중교통 등을 일컫는다. 교통은 전체 도시 에너지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며, 온실가스의 5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교통 부문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신재생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량의 근본적 감소, 화물 운송의 저탄소화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한데 제시된 대책들의 우선순위가 빠졌다. 전기모터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녹색교통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LEDS 교통 부문 대책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방점을 두고 도시 공간을 녹색화해 나가야 한다.

그 방법으로 LEDS 교통 부문 우선순위 첫 번째는 도시개발과 녹색교통 체계 공급을 선순환시켜 완전 도로와 축밀 도시공동체(Complete Street & Compact Community: 이하 완도축시)를 건설해야 한다. '완도축시'란 보행,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PM) 등이 있으면 누구라도 집에서 쇼핑센터, 전철역, 공원 등에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이는 역세권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역세권 초고층 아파트의 개인 차량 주차장을 없애고, 녹색교통을 기본으로 모듈화된 건설을 한다면 건설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개인 교통수단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수소 버스 등 기술적인 개선과 아울러 공간적 성능 개선이 중요하다. 대중교통의 공간적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광역적 협력이 필요하다. 광역 대중교통 수단은 도시 외곽 시내 통근자들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켜 도시 내부를 활력 있게 만들고 도시 외곽의 교통체계를 녹색화 한다.

세 번째는 전기차 인프라다. 전기차 도시 교통 체계가 도시 전체로 완성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도시 배터리가 완성된다. 이것이 국가 전체로 이루어지면 스마트 그리드며, 완도축시 단위로 이루어지면 마이크로 그리드다. 도시 차원에서 산업 기반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주유소형·노변주차형·건물주차형·도로매립형 등)를 늘리기 위한 전략과 실용화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신기술 도입과 인센티브 부여다. 신기술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특성이 있다. 인센티브 결합 요소들이 많을수록 부가가치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과 차량 공유 및 주차비 정산 시스템의 결합이다. 자율주행과 공유 차량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각종 교통 비용 자동 정산과 결합하면 기술 도입이 빨라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스템과, 일반 도로 혼잡통행료 관리 및 주차 관리를 결합할 수 있다. PM이나 공유차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노상 주차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면 녹색교통 실현을 앞당기게 된다.

다섯 번째는 물류 유통망의 녹색화다. 코로나 이후 물류 상품의 이동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류 배송센터의 입지를 시민들의 녹색교통과 주거 생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물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역 먹거리 생산과 물자 유통의 근접 연계를 통해서 장거리 운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식품 수송 거리(food miles)가 멀어질수록 지역 경제의 토대는 약해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도 멀어진다.

정부나 기업, 시민들은 미래 도시 방향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 혁신 기조에 시민들이 동조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녹색교통 시민단체 활동에 재정적·물리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녹색교통과 '완도축시'가 정착되면 모듈러 건설 기술, 자율주행 전기차 등이 제2의 스마트폰처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시민들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술 혁신과 녹색교통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기 고

'평균'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조 지 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편이었다. 행사가 끝날 때면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학생들을 두고 선생님들마다 "수업 시간에는 몰랐던 모습을 봤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체육대회 때의 각종 목마다, 응원할 때, 합창할 때, 수련회에서, 장기 자랑 시간에, 축제의 프로그램마다 '평균'에서 벗어난 친구들이 달랐던 까닭이다. 각자의 재능과 적성이 다른데 오로지 시험 점수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줄을 세웠다면 다양한 친구들의 끼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심지어 공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과목을 다 골고루 잘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도 있었고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도,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도 있었다.

우리는 보통 '평균'적인 삶을 추구한다. 평균에서 벗어나면, 아니 평균에 못 미치면 불안함을 느낀다. 반대로 평균보다 나은 경우에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가 많아진 요즈음엔 더더욱 그렇다. 평가 결과를 받고 나면 늘 평균이 몇 점이었는지(내가 평균보다 높은지), 비슷한 수준의 사람 또는 기관이 몇 점을 받았는지가 궁금하다. 그런데 정말 평균보다 높으면 잘한 것이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 학습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들보다 정답을 많이 맞히는 것만이 제대로 학습을 한 것일까?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학습을 안 한 것일까?

평균적인 모습으로 살면 '정상'(normal)이라고 하고 평균에서 한참 벗어난 경우에는 '이상점'(outlier)이라고 하지만 '평균적인 삶'이나 '평균적인 발달'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 이 세상 사람 중에 평균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평균 체형에 맞게 만들어낸 옷이나 가구가 제 몸에 딱 맞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1940년대 미국에서는 젊은 여성 1만 5000여 명의 평균 신체 치수를 측정해서 만든 조각상 '노르마'(Norma)에 가장 가까운 여성이나 공군 조종사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신체 치수를 가진 조종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한 명도 없었던 사례도 있다.

선생으로 살고 있는 지금, 학생들의 '개개인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 지능·능력·성격·재능이 같은, 아니 적어도 비슷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평소 모습을 보고 예상했던 것보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도 있고, 시험 점수는 다소 낮지만 성실성이나 인내심 만큼은 매우 뛰어난 학생도 있고, 늘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다. 1~2학년 때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졸업할 무렵에는 가장 앞서 있는 학생도 있다. 그래서 성적을 부여할 때면 다양한 잣대로 평가해 보려고 고민도 하고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숫자로 드러나는 객관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강점을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문제가 있는, 평균에서 벗어난 클라이언트라 할지라도 개인은 각자 재능·자원·역량·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개발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은 모든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의미가 아닐까? 카피라이터 박웅현은 저서 '여덟 단어'의 '본질' 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목적이 '수영을 잘하는 것'이었다면 저는 일찌감치 나가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는 본질을 저는 '땀 흘리는 것'으로 정했어요. 저는 수영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빨리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강사에게 잘 보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싶다.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 남이 아닌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의 속도와 나의 경로로 나아가는 것이다. 평가자로 수많은 평가를 하고 피평가자가 되어 평가를 준비하면서도 평가의 본질에 집중하자는 말을 하곤 한다. 평가 결과로 나타나는 양적인 숫자보다 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약점을 보완하는 데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 다짐을 하곤 하지만 앞으로의 나 역시 '평균'을 아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만의 방향으로, 나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다. 매일은 치열하되, 인생은 느슨하게!

社 說

도 넘은 민주당 경선 이전투구 당장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불필요한 과거사 공방에 이어 누가 민주당 적자인가를 놓고 벌이는 '노무현 정부 적통론'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급기야 '지역주의'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과 이를 저지하고 1강 독주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재명 후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후보들도 가세했다. 문제는 이들 후보 간 공방이 거의 막장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잇는 중대한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후보도 "가볍고 천박하며 부도덕하기까지 한 꼴보수 지역 이기주의의 역사 인식"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백제 발언'이 담긴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낙연 캠프가 가짜뉴스로 지역주의를 조장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을 놓고도 거칠게 충돌했다. 두 후보 진영 간에는 왼팔 장애 때문에 군 복무 면제를 받은 이재명 후보를 모욕한 민주당 군필 원팀 주장과, 경기도 유관 기관 간부가 이낙연 후보를 비방한 것을 둘러싼 공방 등으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집권당 내부에서 이런 과거 회귀적이고 퇴행적인 분란이 어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 본선 경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또다시 지역주의 망령을 불러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저급하고 비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당장 멈추고 정정당당히 정책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섬진강 홍수 보고서' 책임 회피용 아닌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애초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급격한 방류량 확대'와는 거리가 있는 데다 사고 책임 주체마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어제 전북 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해의 근본 원인으로는 섬진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 지목됐다. 이틀간 2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폭우가 쏟아진 것과 섬진강 및 지방 하천의 정비·관리 소홀도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당시 댐의 방류량이나 홍수 이전 수위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 등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기는 했지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책임 회피용 맹탕 보고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주민들은 "수해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 정확한 원인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 기관이 보고서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등이 조사 대상 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에 중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제공해 검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물난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부가 발주해 애초부터 '셀프 조사'라는 비난을 샀다. 정확한 수해 원인 및 책임 규명으로 배·보상이 이뤄질 것을 애타게 기다려 온 주민들은 지난해 수해 직후 수차례 찾아와 진상 규명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약속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無 等 鼓

히말라야의 별

김홍빈 대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남극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해발 4897m)를 등정한 2009년 무렵일 것이다. 그는 거침없이 오른손을 내밀었다. 손가락이 없는 뭉툭한 손이었다. 순간 악수를 망설이다 엉겁결에 그 뭉툭한 손을 움켜잡게 됐는데, 의외로 힘이 느껴졌다.

열 손가락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신체적 핸디캡이다. 하지만 고산에 오르고자 하는 그의 발걸음을 막는 장애가 될 수는 없었다.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을 모두 마치고 히말라야 8000m 급 14좌 도전에 나섰을 때 기자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냈다. 수년 전 14좌 등정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한 그는 손가락을 잃게 된 1991년 북미 매킨리 등정과 사고 경위를 담담하게 들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손가락을 잃게 한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14좌 완등 도전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8분(현지시간)께 14좌 가운데 마지막인 브로드피크(8047m)에 올랐다. 장애를 극복하고 완등한 위업이었다. 하지만 하산 도중 실종됐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모든 국민들은 그의 '생환'(生還)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희박한 공기와 영하 수십 도의 강추위를 무릅쓰고 산악인들은 왜 극한의 8000m급 설산에 오르는가? 영국 등반가 조지 맬러리(1924년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실종)는 이렇게 답했다.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Because it is there)

극한의 환경을 뛰어넘는 산악인들의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특히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 대장의 도전은 더욱 그러했다. 지난해 여름 광주 시립 사진전시관에서 열린 '김홍빈 산악사진전'에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열정'이라고 일일이 사인을 해 주었다. 그의 산 인생을 압축하는 키워드일 것이다.

김홍빈 대장에 대한 추가 수색이 가족들의 요청으로 어제 중단됐다. '히말라야의 별'이 된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영원히 빛날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